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바라며

백운영 미주 대표

“선교사님 기도도 안 해보고 NO 하지 마세요” 미주 이사장님의 간곡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 들려왔다. 이미 여러차례 고사했기에 이번에는 답변을 미리 차단하고 기도하라고 권한다. 차기 미주 대표를 위한 선출 위원회 결과, 제가 결정되었다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기를 권유한다. 목회를 조기 은퇴하고 가슴 뛰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정착한지 일년만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 부부를 다시 선교의 중앙무대로 불러 내셨다.

12 년만에 다시 돌아온 미주 대표의 역할이다. 20 년전 처음 미주대표가 되었을 때는 40 대 중반이었으나 지금은 만 66 세로 이 자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내신 분명한 이유를 매일 아침마다 물어보는 기도가 일상이 되었다. “하나님 지금 무엇 하세요? 저희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시켜 주세요”

그래서 20 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내 생각과 계획, 내가 원하는 사역 과 결과를 다 내려 놓고 이 자리에 서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 봤자 하나님의 계획 이 아니라면 그건 말짱 헛것이 될 것을 알았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알아가는데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확인 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여전히 많은 질문으로 매일의 기도를 시작한다. 2025 년에 과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니 격변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며 그 일에 우리를 어떻게 동참시키실까? 그리고 어떻게 그 큰 세계 선교의 스펙트럼에서 아직 보잘 것 없는 GP 선교사들을 어떻게 받으시고 사용하실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오늘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길 원한다.